

# 신당 통합 목소리 커지는데... 安·千 같은 듯 다른 고민

<안철수> <천정배>

신당 추진 세력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천정배 의원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호남 출신의 유선호·장세환 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통합된 단일 신당을 원한다”며 ‘안철수-천정배-박주선’ 신당 세력의 3자 원탁회의를 촉구했다.

두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은 지금의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권 신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신당은 지금처럼 여러 갈래로 분열된 복수의 신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열 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필패하는 공멸의 길로,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독자신당 창당 뒤 당대통합은 시일이 촉박한 탓에 이합집산과 지분 다름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철수·천정배·박주선 의원에게 “지금 즉시 독자적인 창당 일정을 중지하고 ‘관련 당사자 원탁회의’를 개최해 하나로 통합되는 단일 신당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철수·천정배 의원은 일단 부정적이다.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호남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칫 ‘도로

## ‘호남당’ ‘도로 새정치’ 부담

### 새정치 탈당과 흡수·경계

### 권은희, 천정배 면담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새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지난 22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어떻게 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단 독자 신당 창당 작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오는 27일 신당 창당과 관련해 자신의 ‘새정치’ 기조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신당의 비전과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다. 또 2월8일(살날) 전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천 의원도 탈당이 예상되는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과 면담을 갖는 등 의원확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천 의원과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천 의원실에서 35분간 면담하고 야권 분열 상황과 관련한 고민과 해법을 공유했다.

권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천 의원은 가장 먼저 고민을 시작하면서 야권 개혁과 새정치연합의 변화를 요구했던 선배 정치인”이라며 “저의 가치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신뢰를 보여준 천 의원에겐 현상황의 고민과 답변을 듣고 싶

었다”고 면담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이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 의원은 또 내년 1월 시도당 창당을 마치고 1월30일쯤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총선 때까지 통합·연대를 무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우선 독자 신당 창당 후 다른 신당과 연대·통합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두 의원의 입장은 신당 모습을 혁신과 참신성 등에서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자칫 신당의 이미지가 훼손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신당 추진세력의 통합·연대에 대한 비슷한 입장 속에서도 두 의원은 새정치연합과의 총선 연대 여부, 새정치연합 탈당파의 흡수 등을 놓고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총선 연대를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반면 천 의원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준다”며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안 의원이 탈당과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반면 천 의원은 탈당파의 상당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말만 신당이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찾아간 권은희 탈당이 예상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왼쪽)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창당을 준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방문, 면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金-文-安 대선주자 지지율 오차범위 접전

### 안철수 나홀로 상승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안 의원의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3명의 지지도가 모두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사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김 대표가 17.6%로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나선 안철수 의원의 영향으로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2.7%포인트 하락했다.

2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16.6%)도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안 의원은 16.3%로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5.6%포인트)과 경기·인천(4.4%포인트), 50대(5.6%포인트)와 60대 이상(3.3%포인트), 무당층(4.7%포인트), 중도층(7.8%포인트)과 진보층(4.0%포인트)에서 상승폭이 컸다.

내년 총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아직 탄생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은 전주보다 3.2%포인트 상승한 19.5%를 기록했고, 새정치연합은 3.8% 내린 21.9%였다.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9.4%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좁혀졌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7.8%였다. 정의당은 6.1%,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는 1.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3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결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0%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

## 문재인 “당 혼란 몰고 가는 분열적 행동 멈춰라”

### ‘조기 선대위’ 카드 별무효과... 새정치 분당 사태 악화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분당의 위기를 좀처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당내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이 내놓은 지도부 2선 후퇴와 조기 선대위 구성의 중재안에 대해 문 대표가 수용 입장을 보여 분당 사태의 수습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날 오후 추가 탈당이 없어야 하고 ‘공천 혁신안’의 담보를 전제하면서 중재안은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탈당을 고심 중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중재안 자체에 때늦은 카드로,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 대표의 사퇴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당의 위기를 수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사

태와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한 방안은 이미 충분히 제시했다”며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방안이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단합하고, 그 힘으로 당 밖과도 통합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설령 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당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분열적 행동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사퇴라는 결정적 카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새정치연합의 분당의 흐름은 날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

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분당은 이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이제 서로 혁신을 경쟁하며 내년 총선 직전 연대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탈당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해자·장병완 의원은 이날 문 대표의 결단을 재촉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에서 탈당 사태를 막고 새정치연합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길은 문 대표의 결단 뿐”이라며 “문 대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광주 민심을 즉각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으려고 야권 통합을 이루는 것은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당은 밖에 나가 있는 야당 세력에 대해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 포용과 통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통합전당대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 지도부 변화 필요”

### 김한길 의원 “제 거취 문제는 작은 선택일 뿐”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24일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 관련 질문을 받자 “저의 고민은 딱하나 총선승리의 길을 찾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지도부의 변화가 있어야 야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야 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 거취 문제는 여기에 이어진 작



은 선택일 뿐”이라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작동하는 한 부품으로서나마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계속 교감을 하는 그는 질문에는 “가끔 통화한다”고 답했고, 문 대표와 최근 들어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화주셔서 통화도 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점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